

광주 청정대기산업, 한국판 그린뉴딜

빛그린산단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일자리 창출 2807명 생산유발 3098억원 등 기대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하고 한국판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광주에서 본격 추진된다.

광주광역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가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146억원이 2021년 환경부 본예산에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는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산업·수송분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한 주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시설을 집적화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수송분야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과 측정기기가 실증단지 등 육성 허브를 구축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혁신기술의 제품화·사업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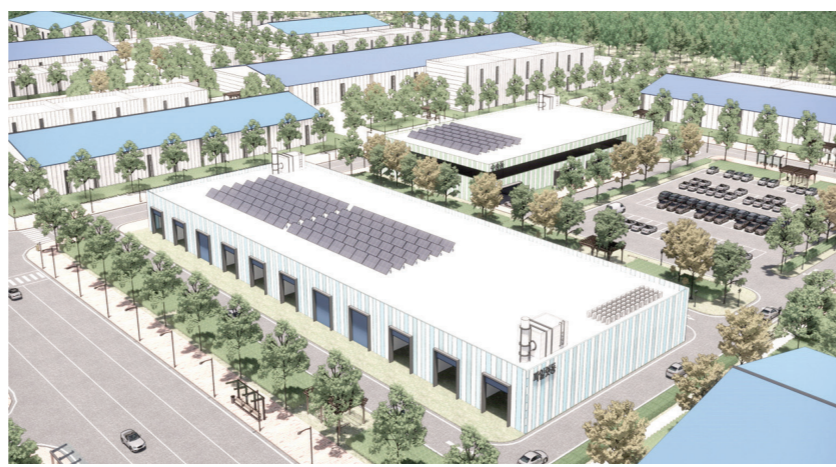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그린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오는 2022년까지 빛그린 산단에 3만㎡(450억, 전액국비)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설계비 20억원을 정부 3차 추경에서 확보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부지 매입과 더불어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4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광주유치 및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청정대기산업 실증단지 조성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2807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됐으며, 준비단계 749억원, 운영단계 2349억원 등 309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월 설계비 확보 이후 환경부와 함께 공사 수행방식 협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달청 및 총형 서비스 약정 체결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그린뉴딜의 주력사업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광주 청정대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에 인증시설과 진흥시설, 환경산업협회가 추가 입지하도록 하고, 타 지역에 동일한 분야의 클러스터의 지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환경부 등에 제시했다.

시는 향후 필요한 정책 사업의 지속적 추가 발굴을 통해 광주가 명실공히 청정대기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본부

동구행복재단, 민·관협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광주 동구는 동구행복재단(대표이사 김병규·이하 재단)과 ㈜국제커리어센터(대표 김정수)가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관내 민간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과 ㈜국제커리어센터는 협약을 통해 ▲동구 지역발전을 위한 협업사업 기획 및 운영 ▲상호기관 홍보 및 참여자 연계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력 ▲동구행복재단 시설운영 및 공익사업 관련 참여자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제3기 서구 학부모 대학수강생 모집

광주 서구에서는 오는 15일까지 2020년 '제3기 서구 학부모 대학수강생'을 모집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녀교육을 위한 안내'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된다.

총 2강짜리 △1차시'포스트코로나 시대 소통하는 부모 공부하는 자녀' △2차시'코로나시대 가정교육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운영되며, DM교육연구소 이태경 대표와 여주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영범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구, '2020년 비상대비 업무' 최우수 기관

광주 남구가 광주시 주관 '2020년 비상대비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지난 11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시 상황 등 비상대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전시대비 계획 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 한해 각 자치구에서 추진한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 평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지난 8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 복구에 행정력이 집중돼 실제 훈련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서면 평가로 진행됐으며, 평가 지표로는 비상대비 분야와 읍·면·태극연습 분야, 충무훈련 분야에 대한 행정업무 추진 실적이 반영됐다.

북구, 동절기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 추진

광주 북구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및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취약계층 지원·보호 ▲서민 생활안정 ▲재난·안전관리 등 4개 분야 16개 과제가 중점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1만 100여 곳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에 주력한다.

광산구, '시민 체감형 맑은 공기산업 포럼' 개최

광주 광산구가 지난 11일 이야기꽃도서관에서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광산구 시민 체감형 맑은 공기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하고, 온라인 생중계했다. 광주 공기산업 대표 기업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전문가들과 공기산업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광산구 공기산업을 진단해 정부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양승화 호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포럼은, 김윤섭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팀장의 '공기산업이란 무엇인가'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사업단장이 나서 '공기산업 발전방향과 산학연관의 역할'을 발표했고, '공기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사업 '전국 최다'

전국 7개 중 3개 차지...참문어·낙지 5년간 130억 투입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 공모에서 전국 7개 중 최다인 3개소를 차지했다.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 가임유도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다.

선정 지역 및 품종으로 여수시는 참문어가, 무안군과 함평군은 낙지가 각각 선정돼 수산자원 조성과 서식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유도하게 된다.

이들 지역에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6억 원씩 총 130억 원(국비 65억 원, 지방비 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군별로 여수시는 50억

원, 무안군과 함평군이 각각 40억 원 등이다.

도내 참문어 주생산지인 여수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참문어의 산란·서식기반 조성 및 방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원량 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안군과 함평군은 비교우위인 갯벌자원을 활용해 갯벌 산란장 조성과 낙지 교점 이식, 어미 낙지 방

류, 먹이생물(칠게) 조성,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어업인 주도의 지속적인 낙지자원 이용관리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연근해 자원회복을 위해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서식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며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미래세대 위한 100년 숲길 조성

휴식공간·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기후변화 대응 '기대'

광주를 대표하는 수변생태축인 영상강과 황룡강 제방에 28.04km의 '광주 100년 숲길'이 조성됐다.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광주 100년 숲길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광주 100년 숲길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등을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영상강 승촌보~월산보 일대와 황룡강 선운지구 일대 28.04km 구간에 2

만84그루를 심었다. 특히, 조정 전문가들의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나무 종류를 선정했다.

100년 숲길은 하천 제방에 심은 나무가 자리면서 그늘과 바람길을 만드는 숲으로, 미래세대와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이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기환 푸른도시사업소 정원도시과장은 "광주의 명품 숲길이 될 수 있도록 100년 숲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999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 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0.14.~2020.10.22.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풍성한 미래의 태양광 발전소 1호	임민수	998.8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산67-1, 1019, 1021-2, 1021-5
			16,865㎡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 고소득층 저소득층 →

1.77배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인건 보강책임에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1469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연호 (480828-1644217)
최 후 주 소 : 광주 남구 월광길 10, 2동 202호(월산동, 광신주택)

위 망 김연호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12월 14일

공 고 인 : 김학동
주 소 : 천안시 동남구 청당4로 60, 112동 402호(청당동, 청당동한양수자인블루시티)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12월 7일
공 고 기 간 : 2020. 12. 14 ~ 2021. 2. 14